

### 微生物特許取得節次 簡素化

—WIPO 外交官會議서 論議豫想—

今年에 열릴 WIPO(世界知的所有權機構)의 外交官會議에서는 WIPO가 提案한 特許節次의 目的을 위한 微生物의 寄託에 관한 國際承認條約을 協議하게 될 展望이며 이 회의에서 승인되면 2~3年안에 實現될 것 같다.

이 조약이 노리는 것은 微生物特許取得節次를 簡素化하자는 것이며 微生物을 이용한 發明에 대해 外國에서 특허를 취득하려면 寄託이란 절차가 필요하

로 이를 크게 簡素化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약이 發効하면 특허가 되는 微生物菌株의 특허취득을 희망하는 나라의 寄託機關에 출원과 동시에 發送하게 된다. 따라서 出願인이 複數 國家에서 특허를 취득하려면 각국에다 微生物의 균주를 기탁하여야 하며 寄託制度가 실시되면 第3者가 손쉽게 균주를 入手하고 그 발명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

### 工業所有權 必要性的의 3個 類型

—韓·美·日이 그 標本—

工業所有權 必要性的의 類型을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自社 製品의 技術權利保護로서 國內外市場의 獨占擴大, 둘째는 첫째의 유형에다가 名譽權的 誇示, 셋째는 첫째에다가 技術料收入의 積極化를 겸한 유형들이다.

첫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中進國 또는 開發途上國으로서 輸出伸張이 切實한 國家의 경우—

둘째는 技術先進國에 追從하려고 多出願을 指向해은 日本 등의 경우—

셋째는 高度한 技術단을 개발하여 特許權을 취득함으로써 自社 利用과 技術輸出로 收益을 올리려는 美國과 같은 先進國의 경우들을 들 수가 있다.

첫째의 유형에 속하는 韓國은 商品의 內需에서의 필요성은 普遍化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學論의 여지도 없다. 그러나 수출진장을 위한 시장확보면에서 公營 소유권에 아둔하면 少額輸出 때와는 달라 流通은 완

전히 斷切되고 만다. 그래서 차츰 국내외로 특허, 意匠, 商標의 출원에 눈을 돌리고 있다.

둘째의 유형은 多出願競爭을 企業의 名譽로 하다가 요즘은 취득된 권리를 公開하여 技術수입을 企業의 手段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日立製作所는 20,000여건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갖고 있으나 실제 실시하는 率은 30% 미만이다. 大企業일수록 특허권의 保有數도 많고 그만큼 공개에 적극적이다.

셋째의 유형은 美國을 들 수가 있다. IBM社의 경우는 年間 6,000건이상의 발명을 하되 經濟性을 嚴密히 評價하여 總數의 14%정도만을 출원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文獻 등에 공개하여 他社出願을 防禦하고 있다. 또한 개발한 기술은 獨점적 自社利用에 접하여 特許販賣部署까지 設置하고 商標수입과 아울러 기술로 수입을 總賣出의 主要收入源으로 삼고 있다. ●

### 特許出願 審査請求率過多에 關치

—日本特許廳, 對應策 講究—

日本特許廳은 4월부터 特許出願이나 審査請求率이 높은 企業을 對象으로 출원을 줄이고 綿密한 事前調査를 前提로 한 特許適正化對策을 講究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昨年 8月에는 出願件數가 많은 上位 25社를 相對로 1次 折衝을 한 바 있으나 별다른 成果를 見우지 못하였다.

특허청이 이같은 대책을 세우게된 動機는 大企業

을 中心으로한 法人出願이, 특히 많은데 關心을 가진 것이며 이들의 출원에 따른 拒絕査定率이 50%를 넘나들뿐 아니라 實施率도 過少하기 때문에 取해지는 行政措處이다.

특허청이 조사한바로는 上位法人 25社의 出願企業은 電機가 11社, 機械 11社, 鐵鋼 3社이다. ●